

차두리 '발탁' 박주영 '탈락'



다음 달 8일과 11일 가나와 A매치, 시리아와 아시안컵축구 예선을 치를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이 확정됐다. 펠 베어백 축구대표팀 감독은 26일 김동진(제니트), 이영표(토트넘), 김진규(이와타), 차두리(마인츠), 이호(제니트), 김정우(나고야), 설기현(레딩), 조재진(시미즈) 등 해외파 8명이 포함된 대표팀 명단 31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 내달 가나전 베어백호 확정

이영표·설기현 등 해외파 8명 포함

염기훈 등 3명 첫 '태극마크'

K-리그에서 슬럼프를 겪고 있는 박주영(서울)은 2기 베어백호에 이어 또 탈락했다. 2기 멤버에 뽑히지도 못함으로 합류하지 못했던 차두리는 수비수 요원으로 뽑혔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맹활약한 염기훈(전북)과 지난 주말 헤트트릭을 작성한 오장은(대구), 수비수 김치우(인천)는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베어백 감독은 대표팀을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5일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



닝센터)에 소집해 가나, 시리아전에 대비한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소속 팀 주전 경쟁에서 밀려 네 경기 연속 결장한 이영표는 포함됐고 K-리그 경기에서 오른쪽 종아리 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한 송종국(수원)은 상태가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일단 소집 명단에 들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허석호·위창수 월드컵골프 한국대표

한국프로골프협회는 12월 바베이도스에서 열리는 월드컵골프대회에 출전할 한국 대표 선수로 허석호(33)와 위창수(34·테일러메이드)를 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제프로골프투어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대회는 월드컵챔피언십(WGC) 시리즈 중의 하나로 세계 랭킹 상위 18위 이내에 든 선수가 있는 국가와 주최국 포르투갈이 자동출전권을 얻고 나머지 5개국은 지역에선

을 통과해야 출전할 수 있다. 한국은 최경주(36·나이키골프), 허석호의 세계랭킹이 자동 출전권을 얻어내기에 충분히 2회 연속 예선을 거치지 않고 본선에 나서게 됐다. 2002년과 2003년, 그리고 작년 대회를 포함해 최근 세 차례 출전했던 최경주가 "후배들에게 세계 무대를 경험할 기회를 주겠다"며 출전을 고사해 최경주 다음으로 세계

랭킹이 높은 허석호가 1순위로 선발됐고 유럽 프로골프투어에서 우승컵을 거머쥐었던 위창수가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에서 나서게 됐다. 한편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인 미국은 라이더컵 멤버로 뛰었던 스튜어트 싱크와 J. J. 헨리를 대표 선수로 뽑았다. 라이더컵에 맹활약을 펼친 루크 도널드와 데이비드 하웰(잉글랜드), 파드리크 헤링턴, 폴 맥킨리(아일랜드)도 출전하며 팀 클라크와 로리 사바티니를 내세운 남아공과 노장 벤투하르트 랑거와 신에 마르켈 짐을 뽑은 독일도 우승 후보로 꼽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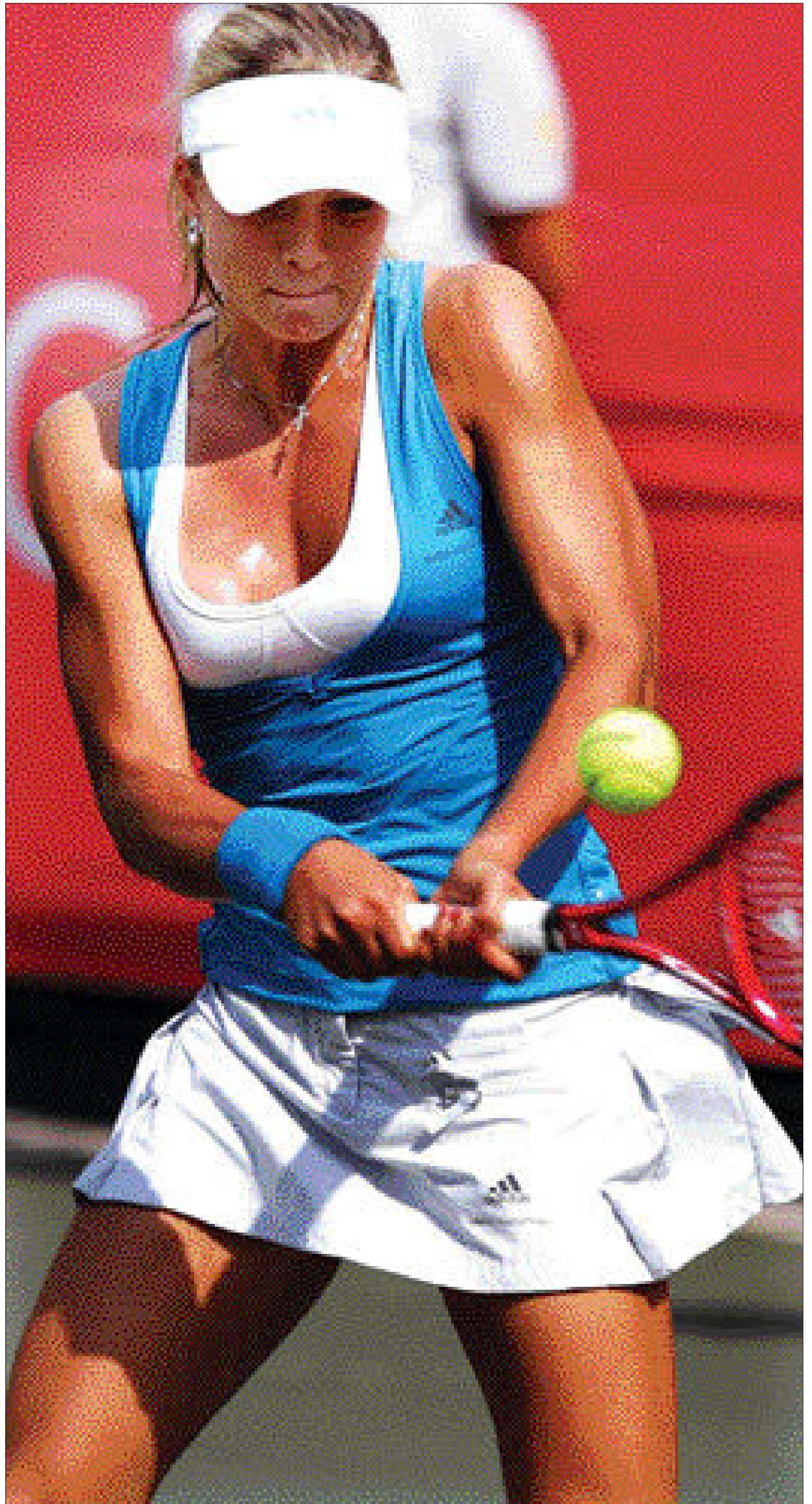
함평 다이너스티CC 잔디 완벽 복원 스타투어대회 참가 프로선수들 극찬

양산디 라운딩 진수 만끽

○ 4계절 양산디 골프장 합평다이너스티CC가 최근까지 페어웨이 잔디와 그린 잔디를 최상의 상태로 완벽하게 복원시켜 회원들과 내장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사진> 특히 오는 28일부터 3일간 열리는 한국 여자프로골프 2006 KB국민은행 스타투어 3차전을 앞두고 잔디 정비를 완벽히 마쳐 연습라운딩을 한 프로 선수들에게 찬사를 받았다. 지난 26일 연습라운딩을 한 선수들은 페어웨이 잔디상태와 그린상태가 경이하는 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함께 양산디의 특성상 앞으로 가을과 겨울철 잔디의 푸르름이 갈수록 더해 갈것으로 전망돼 골퍼들이 양산디 라운딩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합평다이너스티CC관계자는 "최근 페어웨이와 그린보수 등 잔디복원을 깨끗하게 마쳐 내장객들이 최고의 상태에서 골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갈수록 퇴색하는 일반 골프장의 잔디와 달리 푸르름이 더해가는 양산디만의 장점이 살아나 앞으로 차별화된 고품격 라운딩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7일 열리는 2006 KB국민은행 스타투어 프로암대회에는 허재호 대우그룹 회장, 120명의 국민은행 임원과 VIP고객, 신지에, 안선주, 박희영 등 이번대회에 출

전하는 프로선수 40명이 함께 라운딩을 하게된다. '골드레이크오픈'도 개막 ○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일간 나주 골드레이크CC에서 열리는 SBS코리안 투어 '중흥S-클래스 골드레이크오픈'에 신용진, 석종용, 모중경등 KPGA 상급 상위랭커들이 대거 참여해 호남지역 골퍼들에게 수준 높은 경기를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골드레이크CC 관계자는 "중흥S클래스 골드레이크 오픈대회는 호남 지역 최초의 SBS코리안투어대회로 지역 골퍼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키릴렌코 강력 백핸드 공격

26일 오후 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에서 열린 한솔코리아오픈 테니스대회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키릴렌코가 두세비나를 맞아 백핸드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즈, PGA 6연승 노린다

WGC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출전 최경주도 4년 연속 초청 받아

라이더컵에서 유럽에 참패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 6연승 우승에 도전장을 냈다. 우즈는 28일(한국시간)부터 나흘 간 영국 런던 근교 허퍼드셔의 그로브골프장(파72·7천120야드)에서 열릴 월드골프챔피언십시리즈(WGC) 아메리칸익스프레스챔피언십에 출전한다. 7월 브리티시오픈부터 5개 대회를 내리 제패했던 우즈는 HSBC월드메이저플레이 챔피언십에서 1회전 탈락이라는 수모를 당했지만 이 대회가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 대회에서 PGA 투어 연승 행진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아메리칸익스프레스챔피언십은 PGA와

EPGA 투어를 비롯한 세계 각국 프로골프투어 연합체가 주관하는 대회인 월드골프챔피언십 시리즈의 하나로 PGA 투어 대회가기도 하다. 세계랭킹 50위 이내 선수를 비롯해 정상급 선수 70명만 출전해 컷오프없이 상금 750만 달러를 나눠 갖는 초특급 대회인 아메리칸익스프레스챔피언십에서 우즈가 우승컵을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1999년 창설돼 2001년만 빼고 6차례 열린 이 대회에서 우즈는 네 차례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절대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 우즈의 6연승 및 대회 2연패는 라이더컵 3연패로 사기가 올라 있는 '유럽파'의 공세를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다.

폴린 몽고메리(스코틀랜드),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 대런 클라크(북아일랜드), 폴 케이지, 루크 도널드(이상 잉글랜드) 등 라이더컵에서 맹활약을 펼친 유럽 선수들은 한 번도 유럽인에게 우승을 허용하지 않은 이 대회 정상을 노크한다. 이와 함께 우즈의 라이더컵 동료인 짐 퓨릭, 채드 캠펠, 크리스 디마르코, 데이비드 톰스 등도 우즈의 연승 저지에 나선다. '한국산 탱크' 최경주(36·나이키골프)도 4년 연속 '별들의 파티'에 초청됐다. 최경주는 지난해 공동43위, 2004년 공동 57위에 그쳤지만 2003년 대회 때는 공동 6위에 올라 적지 않은 상금을 벌었던 추억이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